

# 유라시아 호령한 고조선 기마군단... 8000km 초원길에 한민족DNA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김석동 명예기자  
지평인문학회 대표

중국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접경지역. 뉴허량(牛河梁) 제2지구 유적지는 드넓은 땅에 지붕을 올린 채 발굴작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붉은 흙으로 넓게 다져진 이 땅에는 옛 신전이 들어섰던 터와 여신의 묘가 있던 터 등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83~1985년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3500~3000년께 초기 중앙집권국가 흔적을 보여주는 적석총, 여신묘, 대형 제단, 옥기 등 유적·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 유물의 발견은 계급이 완전 분화되고, 사회적 분업이 이뤄진 중앙집권국가가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이 문명은 중국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동안 중국이 자신들의 문명이나 문화라고 주장한 바 없었던 지역에서 홀연히 나타났다.

세계 4대 문명권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서는 고대문명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사를 다시 쓰게 하고 있다. 이것이 '홍산문화'다. 네이멍구자치구 츠핑(赤峰) 시 인근 사자텐이란 촌락에서 발굴된 '사자텐하층문화'는 기원전 2400~1500년 청동기시대에 지금의 관하·랴오허 사이 요서지방에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문화 역시 중국의 황하문명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명권이다. 홍산문화와 사자텐하층문화는 단군조선과 그 선대 문명이 아니라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민족 고대국가인 배달국·고조선의 존재와 직결된



## 세계4대문명보다 1000년 앞선 고대 '홍산문화' 존재 '스키타이' 암각화·고분군, 한반도의 유목문화와 연결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민족의 유래와 고대 역사가 밝혀지는 무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홍산지역 일대에서 많은 적석총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는 한민족 고대 모체다. 현지 안내인은 이곳 사람들이 예로부터 적석총을 '가우리 무(고구려 무)'라고 부른다고 알려왔다.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기마군단' 역사가 전개됐다. 북방민족인 흉노, 선비, 돌궐, 몽골, 여진 등은 최강의 제국을 건설해 세계사 중심 무대에서 대활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고, 유럽은 이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인색했다. 그래서 기마군단 역사는 왜곡되고 잊힐 수밖에 없었다. 이들 역사는 이제 당연히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 한민족의 고조선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 유라시아 스텝(중앙아시아·동아시아 내륙부에 위치한 초원지대) 동부지역에 기념비적인 고대국가를

건설하고 동북아를 장악하는 대역사를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 바이칼 호를 지나 몽골고원과 대싱안링 산맥을 건너 남하하면서 문명권을 이뤄낸 한민족 삶의 흐름이 2500년의 유라시아 기마민족역사로 이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31년 '조선상고사'를, 북한학자 리지린은 1963년 '고조선 연구'를 썼다. 이어 1982년에는 러시아의 유엔 푸진이 '고조선 역사'를 썼다. 이들이 쓴 고조선은 우리가 아는 고조선이 아니다. 적어도 기원전 24세기께 존재했던 이 나라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 세계사를 주도한 '유라시아 기마군단' 원류로서 역사에서 다시 자리매김돼야 한다. 역사는 그 땅의 과거사가 아닌 민족 삶의 흐름이다. 고조선이란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고 또 이어졌는지, 이제 그 역사가 한민족 성장 DNA를

설명해 줄 차례다. 헤로도토스에 의해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기마군단은 '스키타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기원전 9세기께 말의 기동력을 활용한 강력한 전투집단, 스키타이가 등장했다. 이들은 메데(메디아·기원전 8세기에 이란 고원 서북부에 메디아인이 세운 왕국)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7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가공할 전투력을 과시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를 장악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기록을 남겼다. "스키타이는 아시아 유목민으로 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도시도 성채도 갖지 않고 어디를 가나 집을 가지고 다니며 모두 말 위에서 활을 쏘 줄 알았다." 스키타이의 전술·전법은 이후 등장하는 기마군단의 전형이 됐다. 그

런데 스키타이의 대규모 고분, 금문화, 암각화, 청동무기, 마구, 동물 모양 장식 등과 유사한 유적과 유물이 기마군단이 활약하던 땅과 한반도에서도 발굴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키타이 문화는 거대한 고분으로 대표된다. 땅속 목곽 위에 돌무지와 흙으로 덮은 무덤으로 무기·마구·동물장식 등 청동 유물이 발굴됐다. 스키타이인들은 황금을 숭배 대상으로 해 카자흐스탄과 신장웨이우얼북부지역에서 금동기들이 다수 출토됐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 암각화는 알타이지역(중앙아시아 고원지대로 몽골·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4국 국경이 접하는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적석총·금관 등 황금문화는 물론 많은 유목문화 흔적이 남아 있고,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와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알타이 암각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암각화도 존재한다. 스키타이와 한민족 문화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김석동 명예기자·최승진 기자 도움

## 닭아도 너무 닭은 고구려 수렵도와 선비족 무덤벽화

고대부터 유라시아를 연결해 인간의 삶과 문명의 소통이 이어지게 한 교역로가 있었다. 이를 광범위하게 '실�크로드'라고 일컫는다. 수많은 민족의 삶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역의 중심이 됐고, 종교·문화·문명이 교류하는 통로가 됐다. 동서를 광범위하게 잇는 교역로는 크게 '초원길' '오아시스길' '바닷길' 등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 북쪽 넓은 초원지대에서 유목민이 이동하던 길인 초원길은 가장 오래된 교역로다. 동유럽에서 카스피해 북안·카자흐스탄 초원·몽골초원·대싱안링 산맥·만주 그리고 한반도에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곳은 광범위하게는 '유라시아 스텝'으로 불린다. 이 길은 고대 한민족의 이동 경로, 활동 무대에도 틀 수 없는 길은 관계가 있다. 빗살무늬토기, 암각화, 고인돌, 고분, 청동기 등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이 이를 증명해 준다.

초원길은 스키타이를 비롯한 흉노·선비·돌궐·몽골 등 북방 기마유목민 삶의 터전이었다. '흉노(匈奴)' 기마군단은 기원전 3세기 말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최초의 스텝 제국을 세웠다. '두만'과 그의 아들 '목특' 시대에 세계사 전면에도 등장한 흉노제국은 기마군단 특유의 가공할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단시간에 몽골고원·북중



중국 지린성 지안의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왼쪽)와 선비족의 무덤 벽화.

국·중앙아시아 등에 걸쳐 600만km<sup>2</sup>가 넘는 초강대국을 건설했다. 흉노제국은 분열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후 300년이 지난 4세기께 홀연히 '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유럽 중심부를 강타한다. 훈 기병은 유럽을 초토화시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하는 등 세계사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흉노는 초원제국의 전형이 됐고, 이후 수많은 초원제국이 역사에 등장한다.

그런데 흉노와 한민족 고대역사 간 관계가 범상치 않다. 중국은 흉노를 호(胡), 고조선·선비 등을 동호(東胡)라 불렀다.

흉노에 이어 등장한 기마군단 '선비(鮮卑)'는 시라무렌강(네이멍구 자치구 동부를 흐르는 강)에서 일어나 몽골고원과 만주의 경계를 이루는 대싱안링 산맥에서 목축과 수렵을 하던 유목 민족이다. 흉노의 지배를 받다 156년 영결 '단석괴'가 등장해 몽골고원·바이칼호·만주·오르도스 일대에 걸쳐 500만km<sup>2</sup>에 가까운 대제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단석괴 사후 다시 분열돼 네이멍구 지역에 흩어진 선비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후일을 기약한다.

선비족과 한민족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다. 선비족 발원지 시라무렌강은 홍산문화 지역을 흐르는 강으로 요화와 이어져 고조선 중심부를 관통하며 흐른다. 네이멍구 접경 조양의 선비족 무덤 벽화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와 너무 흡사하다.

고조선은 선비족 연나라와 대치했고, 고구려는 선비족 모용황과 서북방을 경계로 싸웠으며, 이후 선비족의 수나라, 당나라와 국운을 건 대전쟁을 치렀다.

### 기적 일군 한민족 4대 DNA

땅 크기 세계 109번째, 인구는 세계 26번째, 아시아 최동단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은 근세 이후 제국주의 강점 지배, 전란과 폐허 등 고난과 역경을 겪어 왔다. 그러나 단반세기 만에 거대한 산업국가를 건설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기적을 썼다. 기적의 원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지런하고 뛰어난 인적 자산, 선진기술 도입과 세계 정상급의 연구개발(R&D) 투자, 외국 자본을 활용한 개방 경제 체제였다. 이 바탕 위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 1 승부사기질 2 생존본능 3 목표의식 4 개척자근성

요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기폭제였다. 하나는 수출과 중화학공업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또 다른 원동력은 바로 한민족의 DNA다. 한민족 DNA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빠르게 체득한 승부사 기질이다. 둘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무장

한 끈질긴 생존 본능이다. 셋째, 리더를 중심으로 목표를 쟁취하려는 강한 집단 의지다. 마지막은 세계를 무대로 승부하는 개척자 근성이다. 기마군단 전투력에서도 한민족 DNA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기동성이다. 4세쯤부터 말을 타는 유목민들은 말을 생활의 기초로 삼아 이를 이용해 이동하고 생활한다. 이들은 나무 안장과 등자를 발명해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둘째로 복합 곡궁이라는 강력한 활에 삼각 철화살을 장착해 전투 주무기로 활용했다. 셋째, 갑옷은 철 그물로 만들어 매우 가볍고 강하게 제작했다. 몽골 박물관에 보관된 철갑옷은 무게가 7kg에 지나지 않아 전투력을 배가시켰다. 넷째, 소·말 등 육류는 건조시키고 마유 등은 분말로 만들어 병사 각자가 보관·운반하면서 전투식량으로 활용했다. 다섯째, 기마군단은

일찍이 10진법의 효율적인 근대조직과 엄격한 기강으로 대규모 군단을 통솔할 수 있었다. 여섯째, 기동성을 바탕으로 가공할 속도와 현실적인 후퇴 전술 등 광활한 지역에서 전투력을 극대화했다. 기마군단은 근대 이전의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동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과시했다. 기적을 일군 한민족 DNA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